



“연합뉴스라는 ‘큰 나무’ 살리는 마음으로...”

조합원들 시립양로원서 일일 봉사활동 ‘구슬땀’

연합뉴스 노동조합은 21일 서울 강동구 고덕동 서울 시립양로원에서 조합원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봉사활동을 했다.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양로원에 모여 담당 직원의 설명을 듣고 나서 공원처럼 꾸며진 양로원 뒤뜰로 이동했다. 조합원들이 할 일은 뒤뜰의 영산홍을 가지치기하고, 곳곳에 우거진 잡초를 제거하는 작업이었다.

이날은 절기상으로 태양의 남중 고도가 가장 높다는 하지(夏至)였다. 오전부터 기온은 30도를 웃돌았다. 호미나 전지가위를 들고 부지런히 몸을 놀리는 조합원들의 콧잔등에는 어느새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단순한 작업이긴 했으나 조합원들은 성의를 다해 일에 열중했다.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로 전신을 중무장하고 온 산업부 이세원 조합원은 덥수룩한 더벅머리 같던 영산홍 가지를 날렵한 손놀림으로 깔끔하게 ‘이발’했다. 한 여성 조합원은 열의가 지나친 나머지 영산홍한 그루를 아예 ‘삭발’해버려 다른 조합원들에게 웃음을 안기기

도 했다.

잡초가 무성했던 뒤뜰은 조합원들이 쓸고 지나가자 마치 잘 정비된 정원처럼 단정한 모습으로 바뀌었다.

조합원들은 나뭇가지에 팔이 굽히거나 손에 가시가 박히는 노고를 아랑곳하지 않고 힘찬 호미질로 잡초들을 뿌리째 뽑아냈다. 이날 조합원들이 제거한 잡초는 포대로 10여차례나 운반해야 할 만큼 양이 많았다.

2시간여 동안 구슬땀을 흘린 조합원들은 기념사진을 찍은 뒤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식사하고 일정을 마쳤다. 전날 ‘초특급 점심식사’를 예고한 지도부가 제공한 메뉴는 돼지갈비와 냉

면이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회부 이정현 조합원은 “빼곡하게 자란 잡초를 솜아내면서 파업 기간 우리가 연합뉴스라는 큰 나무를 살리고자 해로운 풀들을 열심히 잘라내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파업이 끝나는 날 오늘처럼 개운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마음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1969년 개원한 서울시립양로원은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그만큼 환경미화를 비롯한 자원봉사의 손길도 절실하다는 것이 양로원측의 설명이다.



<어느 파업노동자의 일기> 제작개발팀 조미나 조합원



아침에 알람이 울린다. 평소 출근할 때도 못 일어나는데, 파업 기간에는 더더욱 일어나기가 어렵다. 20여분을 버티다 일어나

나서 후다닥 씻고 물 한 모금 마시고 남편과 같이 집을 나선다. 너무 게을러지지 않으려고 나름 지키는 규칙이다.

회사에 도착해서 바로 7층으로 가니 사장실 앞에는 총무부원들뿐이다. 사장 때문에 여러 사람 고생이구나고 생각하며 살짝 앉았다. 그러다가 DVD 반납하러 노조사무실에 갔다 오니 몇 분이 와 계신다. 전에는 일찍 도착하면 엉덩이도 아프고 해서 2층 로비에 좀 앉아있다가 올라갔었는데 1주일 만에 오니 깜빡했다.

협상을 한다고 해서 오랜만에 오면 뭔가 분위기가 바뀌었을까 했는데 별다른 점이 느껴지지 않는다. 아쉽기도 하고 안심이 되기도 하고 기분이 미묘하다.

일정이 일찍 끝나서 집에 와서 다시잠을 살짝 잤다. 요즘 낮잠을 자주 자는 편인데, 파업이 끝나도 습관이 유지될까봐 걱정되기도 한다.

오후에는 남편 대신 회사에서 하는 인터넷 학습을 했다. 일도 안 하고 시간은 많은데 이런 거라도 도와줘야지. 강의 제목은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스킬”. 문제제출과 원인 파악, 해결안 탐색과 선정 등의 내용을 들으면서 현재 상황에 대한 여러가지 생각을 한다.

밤에 남편이 파업상황은 어떠냐고 묻는다. 전에도 몇 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너희 회사 파업 언제까지 하나며 짜증 나는 말투로 물었다. 내가 생활비를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런 투로 이야기하니 속이 상해서 연말까지도 버틸거라고 대답했다. 물론 남편 통장에서 결제되는 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협상 중인데 좋게 해결될지 어떨지 이번 주 안에 뭔가는 결정이 날 것 같다고 이야기하니, 더 오래가도 되니까 좋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다.

전에 사장출근저지 첫날 동영상 보여줬더니 불편하다며 못 보겠다고 하더니 뭔가 생각이 바뀐 것도 같다.

지난 10일에는 아버지 환갑 기념으로 친정가족 모두가 3박4일로 중국으로 여행갔다. 몇 달 전부터 계획돼 있던 일정이었는데, 처음에는 파업이 그때까지 가면 어쩌나 걱정했었다. 막상 여행날짜가 다가오자 파업이 끝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행히 휴가를 쓰지 않고 여행을 갔다 올 수 있었다.

돈이 없으니 뭐 사고 싶은 생각도 없고, 선물에 대한 부담도 없다. 마음도 편하고 여유로운 여행이 되었다.

아버지가 60년 살아보니 인생 별거 없다며 너무 힘들게 살지 말고, 대충 하라고 농담을 하신다. 나는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인데 파업 끝까지 가볼 거라고 말했다.

황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태워 나르는 가마꾼과 돌, 흙 등을 대나무 양끝에 매달아서 어깨에 지고 나르는 짐꾼이 보인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종

류의 노동자가 있구나, 돈은 얼마나 받을까, 중국에도 노동조합이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 요즘 뭐든 그쪽으로 연결해서 생각하게되는 것 같다.

전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파업중이라고 이야기하니 무슨 생각으로 참여하는 거냐고 묻는다.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 평소에도 강하게 주장하거나 하는 일이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파업에 동참했다.

파업 시작할 때 제작파트도 아닌데 많이 참여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을 들었지만, 기자들이 기사를 안 쓰겠다고 우리가 왜 남아 있어야 하나며 노조대의원으로서 파업 참여를 독려했었다.

그래서인지 초기에는 사람들이 강성이라고 농담도 했었지만, 그냥 소심한 조합원일뿐이다.

파업특보의 여러 글을 보며 요즘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참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런 사람들을 대신해서라도 집회에 열심히 참석해야겠다. 내일도 투쟁!